



류준열 “설화 속 주인공… 첫 1인 2역”

웹툰 원작 넷플릭스 시리즈 ‘들쥐’… “궁금해 원작 찾아봐”
설경구와 첫 호흡… 설경구 “류준열 아이디어에 큰 도움”

배우 류준열이 ‘쥐가 손톱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오래된 설화 속 주인공이 됐다.

류준열은 20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들쥐’ 제작 발표회에서 “어렸을 때 이 전래동화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며 “그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시청자에게 소개한다는 점에 끌렸다”고 말했다.

“한 회 한 회 대본을 읽는데 다음 전개가 예측되지 않더라고요.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자발적으로 원작 웹툰을 찾아봤을 정도였죠.”

오는 28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되는 10부작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 ‘들쥐’는 한국 전통 설화 ‘손톱 먹은 들쥐’를 모티브로 풀어진 동명의 카카오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의문의 존재 ‘들쥐’에게 이름, 얼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은둔 소설가 제문재(류준열 분)와 잃어버린 돈을 회수하려는 사채업자 노자(설경구), 그리고 형사 순웅(이규형)이 들쥐의 정체를 쫓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연출을 맡은 김흥선 감독은 “원작이 지닌 특유의 서늘한 공포감이 참 좋았고, 극본을 맡은 이재곤 작가가 이를 다이나믹한 추격 서사로 훌륭하게 확장했다”며 “대본



‘들쥐’ 1인 2역 맡은 류준열. 연합뉴스

을 읽을수록 문재를 응원하게 됐고, 들쥐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출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류준열은 진짜 제문재와 그의 삶을 훔친 들쥐를 오가며 처음 1인 2역에 도전했다.

그는 “누가 봐도 1인 2역이고 한 배우가 연기한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관객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며 “무리하게 많은 차이를 두기보다는 눈빛과 성격, 목소리 톤 등 섬세한 부분을 터치해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처음으로 같은 작품에 출연하는 류준열과 설경구의 호흡도 눈길을

끌었다.

설경구는 “류준열은 현장에 올 때 공부를 정말 많이 해오는 배우”라며 “제 캐릭터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던져줘 큰 도움을 받았다”고 칭찬했다. 류준열 역시 “어떤 동료들을 만나 작업하느냐가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던 시기에 선배님을 만난 건 좋은 타이밍이었다”며 “후배와 스태프를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선배님의 열린 모습이 남은 연기 인생에 큰 분이 됐다”고 화답했다.

이규형은 극 중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한 남다른 체중 조절 비하인드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처음엔 형사 역할이라 싸움도 잘하고 거칠어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벌크업을 했는데, 촬영 직전 감독님이 ‘왜 이렇게 됐다. 날카로워져야 한다’고 하셔서 급격히 체중을 감량했다”며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 고생 끝에 캐릭터를 완성했다”고 웃어 보였다.

배우들과 제작진은 극 중 강렬한 액션 시퀀스를 담아내는 데도 공을 들였다고 입을 모았다.

김 감독은 “정돈된 느낌보다는 쫓고 쫓기는 인물들이 서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거칠고 무자비한 날 것의 긴장감을 표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설경구는 “노자는 주먹이 아니라 주변 집기를 막치는 대로 활용하는 생활 밀착형 액션을 선보인다”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영화 ‘내부자들’ 출연진. 왼쪽부터 안보현·박해준·정성일.

하이프미디어코프 제공

하정우 ‘내부자들’ 프리퀄 ‘악인들의 탄생’ 주연

백운식 연기한 이강희 역… 안보현·박해준·정성일 출연

배우 하정우가 2015년 개봉해 7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은 흥행작 ‘내부자들’의 프리퀄(시간상 앞선 이야기를 다룬 속편)에 출연한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하정우를 비롯해 영화 ‘내부자들: 악인들의 탄생’ (가제) 출연진을 20일 공개했다.

‘내부자들: 악인들의 탄생’은 ‘내부자들’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언론·자본·정치 권력 간의 카르텔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탄생 과정을 그린다. ‘내부자들’의 30

년 전 이야기를 그린 프리퀄로 198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한다.

하정우는 신문사 기자 이강희 역을 맡는다. 이강희는 기업 비리 특종을 꿈꿨으나 외압에 의해 한직으로 밀려난 기자로, 카르텔을 만든 핵심 인물이다. ‘내부자들’에서 백운식이 연기했던 캐릭터다.

밀바닥부터 시작해 최고가 되겠다는 욕망을 품은 연예기획사 대표 안상구 역에는 안보현이, 검사 생활을 끝내고 정계에 입문한 초선 국회의원 장필우 역에는 박해

준이 이름을 올렸다.

‘내부자들’에서 이병헌(안상구 역)과 이정영(장필우 역)이 연기한 인물로, 안보현과 박해준이 이들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다.

배우 정성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래그룹을 키워낸 회장 오현수 역으로 함께한다.

‘서울의 봄’ (2023)에서 조감독으로 참여한 김민범 감독과 ‘하얼빈’ (2024)에서 조감독을 맡은 김진석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한다.

제작진은 올해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부산국제영화제서 안성기 생전 모습 본다… 6편 특별 상영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배우 안성기의 생전 모습을 다시 보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오는 10월 6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으로 ‘아름다운 시절, 안성기’라는 제목의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영작은 6편으로, 생전 안성기가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제안받았을 때 추천한 작품들이다.

이장호 감독의 ‘바람 불어 좋은 날’ (1980),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 (1984), 박광수 감독의 ‘칠수와 만수’ (1988), 이명세 감독의 ‘개그맨’ (1989), 정지영 감독의



배우 안성기.

부산국제영화제 제공

‘하얀전쟁’ (1992), 임권택 감독의 ‘축제’ (1996) 등이다.

영화 상영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된다. 안성기 배우와 함께 작업했던 이장호, 배창호, 박광수,

이명세, 정지영 감독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부산국제영화제는 ‘모험과 모범 사이, 시대의 배우 안성기’라는 제목의 책자도 펴내 그를 기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빅뱅 신곡 ‘빅’ 멜론 등 주요 음원차트 ‘1위’ 직행

오늘부터 20주년 기념 월드투어

그룹 빅뱅이 4년 4개월 만에 선보인 디지털 싱글 ‘빅’ (BiiiG)이 발매 후 주요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0일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공개된 ‘빅’은 1시간 만에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톱 100’ 차트 1위로 직행했고, 20일 0시 기준으로 벅스,

지니, 바이브에서도 차트 정상에 올랐다.

‘빅’은 웅장한 비트와 중독성 강한 후크(Hook·강한 인상을 주는 후렴구)가 돋보이는 하이에너지(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한 장르) 힙합곡이다. 멤버 지드래곤이 작사와 작곡에 참여해 팀의 음악 색깔을 짚게 녹여냈다.

이들은 오는 21~23일 고양을 시작으로 데뷔 20주년 월드투어 ‘XX :



그룹 빅뱅.

YG엔터테인먼트 제공

코스모스(COSMOS)’에 돌입한다.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전 세계 19개 도시에서 총 33회 규모로 월드투어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주택용 태양광

지붕부착형 · 주차장형 · 기본형 등 시공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용 태양광

상가 · 펜션 · 카페 · 식당 · 유치원 카센터 · 게스트하우스 · 교회 · 사찰 등

태양광 발전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제품

히트펌프

에너지효율 **378%**

시공문의 064)721-3909

우리에너지코리아 (주)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

☎ 1544 - 4295